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 성별 및 연령별 비교

이래혁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교수

Daily stres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Comparisons by gender and age

RaeHyuck Lee

College of Hyang-seol Nanum, Soonchunhyang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규명하고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13차 청소년온라인건강행태조사의 설문 표본 중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794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및 학교급별 조절효과 분석의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정적 관계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스마트폰 과의존, 다문화 청소년, 일상생활 스트레스, 성별 비교, 연령별 비교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daily stres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s of gender and age. This study performed a serie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s with a sample of 794 multicultural adolescents living with a foreign-born parent or parents from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e main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aily stress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addition, interaction analyses show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daily stres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was more pronounced for male adolescents compared to female adolescents, and for middle school students compared to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concluded with some suggestions to address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 Smartphone overdependence, Multicultural adolescents, Daily stress, Comparison by gender, Comparison by age

1. 서론

201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1],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를 넘어섰다.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인터넷 접속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 정보나 학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 RaeHyuck Lee(raehyucklee@sch.ac.kr)

Received August 23,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16,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는 장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것에 실패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2]. 특히 청소년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가장 취약한 인구층으로 2017년 기준 전체 청소년의 약 30%가 과의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예: 사회적 저하, 공격성 증가,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고려하면[4-7], 어떤 이유로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는가를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다문화 청소년은 10만 9천 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8]. 다문화가정은 저소득층이 적지 않아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자녀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9]. 또한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유대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10]. 마찬가지로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성 혼란과 언어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1].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고립되기 쉬운 다문화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이는 과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실제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사례의 폐해와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12,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예방을 위해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평상 시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 학업 적응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정신적·신체적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4]. 더욱이 스트레스-취약성 이론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야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개인이 지닌 취약성에 의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15]. 즉, 동일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도 취약성을 지닌 특정 개인의 경우 더 쉽게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발달상의 과제와 더불어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차별 등에 이중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부정적 관계가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가족생활 스트레스[16,17], 학업 스트레스[17,18], 대인관계 스트레스[19]가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중독에 미치는 영향도 규명되었다[20-23]. 반면,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를 고려하면[24],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역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부정적 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 더 쉽게 의존할 수 있다는 설명[25]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외모에서의 차이, 언어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에서도 갈등과 좌절감을 경험한다. 이처럼 일반가정 청소년과 달리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 발달상의 기본 과제인 정체성의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이버 공간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추구할 수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해 정서적 유대와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 규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성별 및 연령별로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이해하려는 선행연구 중 상당수가 성별 및 연령별 차이에 주목하였다[26,27].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정신건강 문제, 지위 비행 등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문제에 있어서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며, 나이가 어린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29].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성별 및 연령별로 더 취약한 집단을 밝혀내는 것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자 청소년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변화에 반응하고 이를 표출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은 정서적 변화를 억제하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30]. 즉,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어려움을 일상의 삶에서 표현하고 해소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이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을 고려하면[30],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연령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과 관련된 정서를 다루는 능력이 점점 발달하여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게 된다[30]. 따라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에 있어 미숙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가상 세계에서 이를 해소하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중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률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면[1,8],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9,20,26],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건강상태, 학교성적 등이 있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보고되었다. 또한 가족 특성으로는 가구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 보호자 유무, 거주 지역 등이 있으며, 가구 경제수준과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보호자가 없는 경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다문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학제간 융합적 예방 및 해결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성별 및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가?

2. 연구방법

2.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7년 수행된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중1에서 고3까지의 재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의 건강지표 산출을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매 해 실시되고 있다[3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표본에는 전국에서 표집된 다문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요인으로써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2차 자료로 판단되었다.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별된 799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64,991명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외국인 부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자녀 956명을 선별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가 스마트폰 과의존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162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94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분석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2.2 분석 변수

2.2.1 결과변수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다음의 세 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 청소년은 최근 30일 동안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또는 선후배와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의 여부에 대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토대로 응답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 이용 지침[31]에 따라 세계의 개별 질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4점 ‘매우 그렇다’와 3점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의 빈도를 보고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세 개의 질문의 총점을 활용하였다($\alpha = .679$).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족 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 지장 등을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중독이나 과의존도에 대한 임상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2.2.2 예측변수

본 연구의 예측변수인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평상 시 스트레스 인지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 청소년은 ‘평상 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5점 ‘대단히 많이 느낀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토대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가족생활, 학교생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2.2.3 통제변수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특성으로 성별(여자=0, 남

자=1), 연령(중학생=0, 고등학생=1), 주관적 건강상태(5점 리커트 척도), 학업 성적(5점 리커트 척도)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 특성으로 부모 학력(중졸 이하=1, 고졸 이하=2, 대졸 이상=3, 잘 모름=4), 가구 경제상태(5점 리커트 척도), 부모 동거 여부(동거=0, 비동거=1), 거주 지역(도시 지역=0, 군 지역=1), 가족 유형(외국인 모=1, 외국인 부=2, 외국인 부모=3)을 포함하였다.

2.3 분석 방법

먼저,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 변수를 예측변수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결과변수로 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성별 및 연령별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앞선 회귀분석 모형에 스트레스와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한 분석과 스트레스와 중·고등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한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도 변수는 평균중심화 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이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두드러지는 경향 위주로 살펴보면, 모의 학력이 부의 학력보다 높은 편이고 대부분 부모와 함께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 유형의 경우,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모 이루어진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석 대상 청소년이 스스로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학교 성적의 경우 평균적으로 중간 수준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 경제상태의 경우 대부분의 분석 대상 청소년이 중간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3.2 주요 변수의 특성

Table 2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ic sample

| Categorical variable | | N(%) |
|------------------------------|-----------------------|------------|
| Gender | Female | 418(52.6) |
| | Male | 376(47.4) |
| Age | Middle school student | 409(51.6) |
| | High school student | 385(48.4) |
| Paternal education | Middle school or less | 83(10.4) |
| | High school or less | 251(31.7) |
| | College or above | 192(24.2) |
| | Unknown | 268(33.7) |
| Maternal education | Middle school or less | 56(7.0) |
| | High school or less | 190(23.9) |
| | College or above | 287(36.1) |
| | Unknown | 262(33.0) |
| Living with parents | Yes | 725(91.3) |
| | No | 69(8.7) |
| Living in urban areas | Yes | 696(87.6) |
| | No | 98(12.4) |
| Type of multicultural family | Foreign-born mother | 614(77.3) |
| | Foreign-born father | 83(10.4) |
| | Foreign-born parent | 98(12.3) |
| | | |
| Continuous variable | | M(SD) |
| Self-rated health(1~5) | | 3.79(0.95) |
| Academic performance(1~5) | | 2.86(1.19) |
| Socioeconomic status(1~5) | | 2.99(1.00) |

Note. N=794. Statistics were adjusted by using sampling weights. M=mean, SD=standard deviation.

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분석 대상 청소년의 일상 생활 스트레스의 경우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주에서 평균 3.24점(SD=1.03점)으로 분석 대상 청소년의 대부분이 정상 시 중간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분석 청소년 중 165명(20.5%)이 가족 갈등을 49명(6.1%)이 친구 갈등을 172명(21.6%)이 학업 지장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 세 개 문항에 대한 총점의 경우 분석 대상 청소년은 3점에서 12점의 분포에서 평균 4.93점(SD=1.90 점)을 보여주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focal variables

| Variable | M(SD) |
|---------------------------|------------|
| Daily stress(1~5) | 3.24(1.03) |
| Smartphone overdependence | |
| Total score(3~12) | 4.93(1.90) |
| Individual item | N(%) |
| Causing family conflict | 165(20.8) |
| Causing friend conflict | 49(6.1) |
| Interfering with study | 172(21.6) |

Note. N=794. Statistics were adjusted by using sampling weights.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The association between daily stres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 Variable | B | SE | Beta |
|------------------------------|--------------------------------|--------|-------|
| Daily stress | .158* | (.070) | .086 |
| Gender | .028 | (.134) | .007 |
| Age | -.286* | (.141) | -.075 |
| Self-rated health | -.274*** | (.077) | -.137 |
| Academic performance | -.080 | (.059) | -.050 |
| Paternal education | | | |
| Middle school or less | .215 | (.251) | .035 |
| College or above | .283 | (.195) | .064 |
| Unknown | .180 | (.188) | .044 |
| Maternal education | | | |
| Middle school or less | .364 | (.302) | .049 |
| College or above | -.077 | (.184) | -.020 |
| Unknown | -.065 | (.205) | -.016 |
| Socioeconomic status | -.187** | (.071) | -.099 |
| Living with parents | .368 | (.250) | .054 |
| Living in urban areas | -.415* | (.203) | -.072 |
| Type of multicultural family | | | |
| Foreign-born father | .210 | (.223) | .034 |
| Foreign-born parent | .474* | (.214) | .082 |
| Constant | 1.764 | (.393) | |
| Model fit | F=4.32**, R ² =.082 | | |

Note. N=794. Gender 1=male, age 1=high school student, 'high school or less' was the reference category for parental/maternal education, 'foreign-born mother' was the reference category for type of multicultural family. Results were adjusted by sampling weights.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p<.05, **p<.01, ***p<.001.

3.2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수준이었다(F=4.32, p<.001). 또한 VIF값이 1.05에서 2.10 사이에 분포하여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특성과 가족 특성을 통제한 후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B=.158, p<.05)가 확인되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인식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3.3 성별 및 연령별 조절효과

Table 4는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의존도 사이의 관계에서 성별 및 연령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성별 조절효과를 살펴본 Model 1에서와 같이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성별 사이의

Table 4. Moderating roles of gender and age

| Variable | M | SE |
|------------------------------------|----------|----------------------|
| Model 1. Moderating role of gender | | |
| Daily stress | -.014 | (.092) |
| Gender | -1.159** | (.437) |
| Daily stress × Gender | .371** | (.130) |
| Model fit | F=4.58** | R ² =.091 |
| Model 2. Moderating role of age | | |
| Daily stress | .289* | (.904) |
| Age | .056 | (.134) |
| Daily stress × age | -.270* | (.129) |
| Model fit | F=4.34** | R ² =.087 |

Note. N=794. Gender 1=male, age 1=high school student. All control variables were included, but not presented in this table. Results were adjusted by sampling weights. B=coefficient, SE=standard error. * $p<.05$, ** $p<.01$, *** $p<.001$.

상호작용항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가 남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즉, 그래프에서 실선으로 표현된 다문화 남자 청소년은 점선으로 표현된 여자 청소년과 비교해서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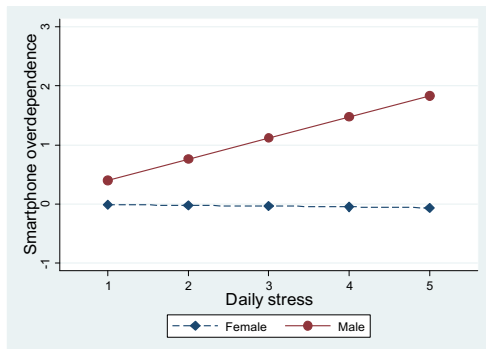


Fig. 1. Moderating role of g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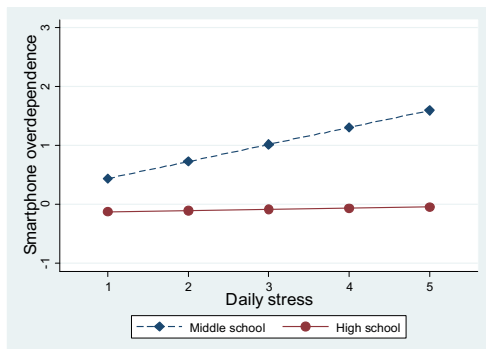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role of age

다음으로 Table 4의 Model 2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연령 사이의 상호작용항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가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즉, Fig. 2에 도식화된 것처럼 실선으로 표현된 다문화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점선으로 표현된 중학생의 경우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 때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경험과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성별 및 연령별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도 중요한 기여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는 논의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0-23]와 일치하는 결과로 다문화 청소년 역시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현실세계를 회피하려 하거나 가상공간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32,33]을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사와 비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증진시키는 노력[9]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 외의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34].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부정적 관계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26]와 일치하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일상의 삶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에 미숙하다는 이론적 설명[30]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언어 문제나 사회문화적 부적응 등에 의해 사회적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별 차이의 경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남자 청소년에게 외로움의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고려하면[26], 다문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특화된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나 체형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스마트폰 과의존이 더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격, 능력 등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고등학생보다 더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26]와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청소년 초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자아 형성의 혼란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초기에 발달상의 과제와 더불어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소년 후기의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덜 발달되어 있다[30]. 이 같은 복합적 이유로 초기 청소년기의 다문화 청소년은 자아 형성이 어려운 현실 세계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가상의 공간에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느끼려 할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35-37]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부모로 하여금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과제를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마트폰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 해소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자료를 활용하는 한계로 인하여 세 개의 문항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차 자료에 포함된 단일 문항의 스트레스 변수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의 유형별(예: 가족생활, 학교생활, 대인관계 스트레스) 또는 정도별 차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청소년의 자기 보고를 통해 수집되어 과소 또는 과대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2차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매개 요인 고려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6). *The 2016 Korea media panel survey*.
- [2]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2016 digital culture forum policy research report*.
- [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2017 smartphone overdependence survey report*.
- [4] B. N. Kim. (2013).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youth's sociality develop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208-217.
DOI: 10.5392/JKCA.2013.13.04.208
- [5] J. J. Woo, E. M. Kwak & H. J. Lee. (2018). The convergence study of smartphone overuse on cyberbullying: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61-67.
DOI: 10.15207/JKCS.2018.9.5.061
- [6] M. G. Park, J. J. Kim & G. Y. Kan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use, school violence attitudes, bullying situation of adolescents in era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111-118.
DOI: 10.15207/JKCS.2018.9.2.111
- [7] H. G. Baek & J. W. Yun. (2014).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and psychological minded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7), 389-400.

- DOI: 10.14400/JDC.2014.12.7.389
- [8] Statistics Korea·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2018 youth statistics*.
- [9] S. Y. Oh. (2013). A study on the cause and preventive measures of smart-phone addi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The Police Science Journal*, 8(1), 149-180.
- [10] J. S. Park, Y. J. Koh & Y. S. Han. (2015). National or ethnic language fluency and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1(4), 649-669.
DOI: 10.20406/kjcs.2015.11.21.4.649
- [11] Y. J. Jang & N. M. Shin. (2015). An ethnography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of peer relationship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8(4), 57-76.
- [12] ChosunBiz. (2013. 6. 13). Internet-smartphone addictions for children, especially those in single parent and multicultural families, are serious.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3/2013061301964.html?rsMobile=false
- [13] Hankyoreh. (2017. 10. 23). Three sons in multicultural family all fell into smartphone use.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15697.html#csidx094f0b0bdacaaf398eee7818b30e1de>
- [14] L. I. Pearlin, M. A. Lieberman, E. G. Menaghan & J. T. Mullan.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DOI: 10.2307/2136676
- [15] J. R. Reynolds & R. J. Turner. (2008). Major life events: Their personal meaning, resolution, and mental health significa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9(2), 223-237.
DOI: 10.1177/002214650804900208
- [16] M. S. Suk & Y. G. Ku. (2016). The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factors on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8(1), 53-77.
DOI: 10.19034/KAYW.2016.18.1.03
- [17] H. J. Lee.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Internet/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Stress*, 25(4), 279-285.
DOI: 10.17547/kjsr.2017.25.4.279
- [18] D. H. Kim, Y. J. Park & J. W. Jang. (2017). The study on effect of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related to academic stress. *Journal of Schol Social Work*, 37, 67-89.
- [19] Y. J. Lee & J. H. Park. (2014). The effect of use motives, self-control and social withdrawal on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459-465.
DOI: 10.14400/JDC.2014.12.8.459
- [20] J. Y. Kim. (2017). The relationship among loneliness,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335-343.
DOI: 10.14400/JDC.2017.15.9.335
- [21] S. Y. Park & S. N. Yang.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use time among adolescents: focused on convergent impl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387-395.
DOI: 10.14400/JDC.2015.13.9.387
- [22] D. H. Kim. (2016).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way of coping in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martphone use in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2), 57-64.
DOI: 10.17547/kjsr.2016.24.2.57
- [23] M. K. Kim. (2016).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205-210.
DOI: 10.15207/JKCS.2016.7.1.205
- [24] J. H. Yu & S. Y. Hwang. (2016).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comparison with those from general familie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3(1), 115-146.
- [25] S. S. Lee & S. H. Jun. (2004). Self-enhancement motive, commitment to Internet space, formation of role-identity, and Internet addiction: A test of identity theory. *Studies on Korean Youth*, 15(2), 27-56.
- [26] H. J. Han & M. S. Yoon. (2010). The impact of adolescents' stress on mobile-phone overuse according to grades and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6), 21-46.
- [27] M. S. Yoon. (2017). Comparing the mobile-phone overuse by gender and school leve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1-9.
DOI: 10.14400/JDC.2017.15.1.1
- [28] W. R. Lee. (2013). A review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9(3), 409-431.
- [29] J. Y. Song & M. K. Bae. (2015). Risk factors influencing on delinquency experience levels in adolescents of

-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39, 29-58.
- [30] B. E. Compas, P. G. Orosan & K. E. Grant. (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DOI: 10.1006/jado.1993.1028
- [31] Korea Center for Disease and Prevention. (2017). *The 13th Korea youth heal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in 2017*.
- [32] J. A. Ryu. (2016). A study for parent education for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29(4), 125-131.
- [33] H. S. Lee. (2015). Effect of teenager media usage control in the era of media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7), 359-366.
DOI: 10.14400/JDC.2015.13.7.359
- [34] Y. Cui & H. S. Kwon. (2014).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media addiction and strategy of media education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7(2), 61-84.
DOI: 10.15685/jms.2014.08.7.2.61
- [35] Y. J. Lee. (2011). A study on parent-children relation influences on Internet excess utility of adolescent in digital peri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9(6), 103-111.
- [36] R. H. Lee & H. L. Chang. (2018). The influences of closeness with parents and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13-25.
DOI: 10.14400/JDC.2018.16.3.013
- [37] K. S. Kim, K. S. Shin & H. M. Lee. (2017).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time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or attach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39-149.
DOI: 10.22156/CS4SMB.2017.7.4.139

이 래 혁(Lee, Rae Hyuck)

[정회원]



· 2014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1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 E-Mail : raehyucklee@sch.ac.kr